

문화전당 개관 효과 이어가려면...



개관 인파 '장사진' 지난 4일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상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① 관람객 많은 일요일 휴관 안된다

9월 넷째주 일요일인 지난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은 노모(40·여·광주 남구 진월동)씨는 어린이문화원 전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다. 이날 아시아예술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을 보러 문화전당을 찾았다가 시간 여유가 있어 아이들에게 어린이문화원을 보여줄 생각이었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예술극장 공연을 보러왔다는 양모(30·서울 강서구)씨도 문화전당 창조원 앞에서 서성었다. 출입구에 '점검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문화전당측은 예술극장을 제외하고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 창조원, 어린이문화원, 정보원의 셔터를 내렸다.

지난 4일 개관한 문화전당을 찾은 시민,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 맞춰 개관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② 길거리 체험·야외 영화상영 등 머무는 프로그램 시급
- ③ 10월 광주 대형 축제 겨냥한 마케팅 상품 개발해야
- ④ 매력적인 전당 경관 소개할 투어 프로그램 상시 운영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는 게 일요일 휴관이다. 문화전당측은 오는 12월 공식 개관을 앞두고 콘텐츠(전시·공연, 운영 프로그램) 확충 작업을 하기 위해 일요일·월요일을 휴관일로 택했다. 그러나, 시민과 관광객들이 문화전당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일요일을 휴관일로 정하는 바람에 개관효과를 반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도 시민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굳이 콘텐츠 구축을 위해 이틀이 필요하다면 관람객들의 방문이 비교적 적은 주 중을 택하는 게 좋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문화전당 콘텐츠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대안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절실하다. 지난 20일 현재 예술극장과 어린이문화원의 주요 공연 프로그램이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이다. 어린이문화원은 개관 전야제가 열린 지난 3일~20일까지 모두 7만4766명이 찾은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예술극장은 전국 공연예술 전문가들의 방문이 잇따랐다.

문제는 '관객과워'를 창출했던 이들 공연물이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추석 연휴를 비롯해 7080총장축제(10월7일~11일), 광주디자인비엔날레(10월15일~11월13일), 광주 세계김치축제(10월24일~28일), 장성 백양단풍축제(10월23일~25일)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크고 작은 축제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문화전당을 알릴 절호의 기회가 열렸음에도 관람객들이 줄어들 마케팅 상품이 없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호재를 살릴 방안으로 문화전당에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예컨대,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때처럼 문화전당 야외광장에서 세계 각국 높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열거나, 문화전당 건물의 벽면에 영화를 상영하는 방안, 전당 투어프로그램의 꾸준한 운영 등이다. 실제 문화전당은 최근 예술극장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자오량 감독의 '베헤모스'를 상영해 주목을 끌었다.

시민 김모씨(48)는 "타 지역에서 온 친구와 함께 문화전당을 방문했는데, 건물을 함께 둘러보고 난 뒤 머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밖으로 나왔다"며 "아름답고 멋진 건물을 보며 즐길 수 있는 소박한 행사라도 열렸으면 한다"고 아쉬워했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요일에 전당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내부 개방에는 한계가 있다"며 "문화전당 콘텐츠 확충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8년부터 초·중·고 수업부담 줄어든다 ▶ 7면
- '고추잠자리' 작사자 함평출신 작가 김순곤 ▶ 16면
- 안나의 남극통신... "꽃 피는 건 반갑지 않아" ▶ 18면

박주선 '현역 1호' 탈당

“중도개혁 독자 신당 추진”... 다른 신당 세력과 연대 모색할 듯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사진) 의원이 22일 “야당의 창조적 재편과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의 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관련기사 3면>

이는 당내 현역의원으로는 첫 탈당으로, 독자신당 추진 후 ‘천정배 신당’ ‘박준영 신당’ 등 다른 신당세력과 연대·통합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 향후 야권 지형재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처럼 박 의원이 독자 신당 창당을 추진키로 하면서 야권에서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함께 3개의 독자 신당 파가 출현하게 됐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은 민주주의 없는 친노패권정당, 80년대 이념의 틀에 갇힌 수구진보정당, 선거에 이길 수 없는 불임정당으로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낡은 정당”이라며 “건전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융합하는 ‘중도개혁 민생실용정당’을 만들고 계파가 아닌 당원이 주인인 정당, 엄격한 준법으로 출신 수범하는 법치의 정당, 국민에게 문턱이 없고 언제나 소통하는 신문고 정당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수권대안정당 건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극적 양당제’의 혁파와 다당제 전환을 위해 ▲내각제를 포함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국회 원내교섭단체 장벽 철폐 등 3대 정치개혁이 차기 대선 전에 단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일문일답에서 “우선 독자적 정당 추진에 나서겠지만, 차분하게 역할을 하다 보면 10월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며 천 의원, 박 전 지사와 연대·통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새정치연합 내에서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 의원들까지 합류, 내년 1월이 될 원내교섭단체(20명 이상)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내년 총선 행보에 대해 “현재로는 지역구인 광주 동구에 신당 후보로 출마한다는 생각이지만 야권의 재편을 위해 밀알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한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박 의원의 탈당에 대해 “별로 새삼스러운 상황이 아닌데요”라고 말했다.

소비 진작...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열린다

광주신세계·롯데광주점 참여 2만6000여 곳 '그랜드 세일'

정부가 소비 진작,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다음달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할인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대형유통업체 2만6000여 곳이 참여하지만, 백화점들의 세일기간이 기존에 비해 늘었을 뿐 할인율이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지역 재래시장 등은 이미 '그랜드 세일'을 실시하고 있어 큰 효과를 거둘지 의문시되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5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를 겸한 가을 세일을 진행한다. 예년에 비해 세일이

기가 앞당겨 지고 할인 품목이나 프로모션이 늘어났지만, 전반적인 할인율은 기존의 가을 정기세일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전국 재래시장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이미 '그랜드 세일'을 시작했다. 광주 양동시장과 말바우시장 등 광주시내 8개 전통시장을 비롯한 전국 300개 전통시장은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그랜드 세일' 행사를 펼치고 있다. 따라서 재래시장은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사실상 제외돼 대형 유통업체만의 세일행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중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 빛을 가져오
피부에 빛을 머금어 빛나는 것이 되세요
속해선 어떤 피부도 되살려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눈부신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